

1.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 ① dot - 닷
- ② parka - 파카
- ③ flat - 플랫
- ④ chorus - 코루스

2.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 ① ㉠ - Dalakgol
- ② ㉡ - Gukmangbong
- ③ ㉢ - Nanggrimsan
- ④ ㉣ - Hallasan

3.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어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 | | |
|---|----|----|
| | ㉠ | ㉡ |
| ① | 허리 | 春風 |
| ② | 허리 | 秋風 |
| ③ | 머리 | 春風 |
| ④ | 머리 | 秋風 |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5. 맞춤법 사용이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흘날, 베갯잇
- ② 널리리, 남존녀비, 헛택
-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 ④ 홀몸, 밋밋하다, 선율

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7.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맣다 - 싯퍼렁다 - 셋노랑다
- ② 시뻘겑다 - 시허엿다 - 싯누렁다
- ③ 새퍼렁다 - 새빨강다 - 셋노랑다
- ④ 시하얗다 - 시꺼멓다 - 싯누렁다

8.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중략 -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 ② 불화(不和)
- ③ 오해(誤解)
- ④ 독선(獨善)

9.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晚時之歎
-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 ④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10.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 <u>가획자</u> 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① ㄹ
- ② ㄷ
- ③ ㅂ
- ④ ㅈ

11.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12. <보기>의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뻔뻔뻔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①	원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②	아쉬운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③	시인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④	입에 발린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13.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뜸을 들이면서 애드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 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며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 ① 뜸
- ② 공간
- ③ 여지
- ④ 세상

14.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섭섭지
- ② 혼타
- ③ 익숙치
- ④ 정결타

15.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 (ㄱ)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 (ㄴ)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 (ㄷ)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 (ㄹ)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 [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 규칙성
- ㉡ 역사성
- ㉢ 창조성
- ㉣ 사회성

- ① (ㄱ) - ㉠
- ② (ㄴ) - ㉡
- ③ (ㄷ) - ㉢
- ④ (ㄹ) - ㉣

16.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 챗죽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 그위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보다

— 이육사, 「절정」 —

- ① ㉠: 채찍
- ② ㉡: 마침내
- ③ ㉢: 그 위
- ④ ㉣: 재껴 디딜

1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

- ① 조국아/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남의 발톱에 주
어본 적/없었나니(「조국」 中)
-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중립의 초레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깍뎡이는 가라」 中)
- ③ 꽃피는 반도는/남에서 북쪽 끝까지/완충지대(「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불은 발병
났다커니/불은 위독하다커니(「봄의 소식」 中)

18.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
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 물난리[물랄리]
-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 신문[심문]
-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 밟는다[밤:는다]
-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 한여름[한너름]

19.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불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냐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
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
하는 매개체다.
-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건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20.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보기>—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
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① 십년 ㄱ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재채로 묻혀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너 세에 드리
올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쳤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히고 불췌엿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힘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너.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이 면은 여백입니다.